

이슈분석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이병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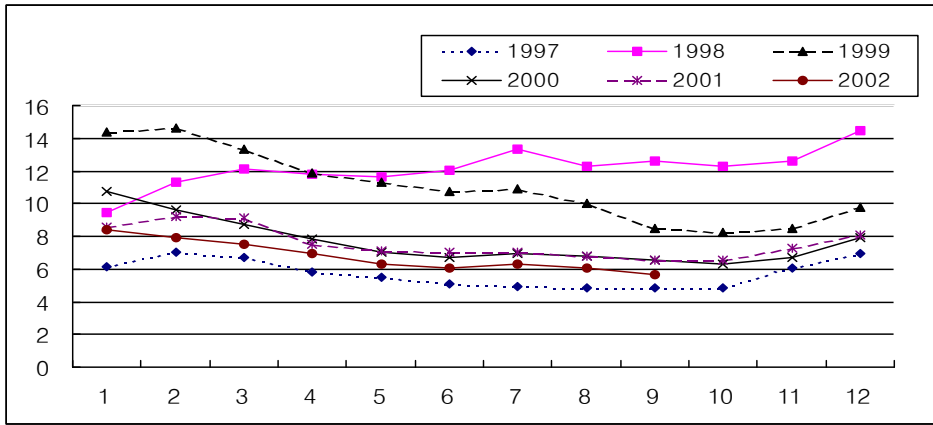
I. 청년층 노동시장 동향

-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한 취업 가능성 및 높은 실업을 경험함.
 - － 경제위기 직후 청년층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와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은 청년층 노동시장이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supercyclical)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반영함.
- 2002년 9월 현재 청년층 실업률은 5.6%(250천명)로서 전체 실업률 2.5%(573천명)의 2배 이상이며, 전체 실업자 중 청년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3.6%에 이르고 있으나,
 - －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9월 4.8%에 근접한 수준을 기록하여 지표상으로는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그러나 청년층의 취업자수가 절대적·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 청년 취업자수는 2000년을 제외하고 감소하는 추이를 지속하고 있음. 청년 취업자가 절대적으로 감소한 일차적인 원인으로서는 청년 인구의 감소를 들 수 있으나, 청년 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인 취업비율이 경제위기 이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청년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줌.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lbh@kli.re.kr).

[그림 1] 청년 실업률의 추이(1997~2002)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표 0> 청년층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단위 : 천명,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9
취업	5,152 [-45] (-0.9)	4,422 [-730] (-14.2)	4,344 [-78] (-1.8)	4,510 [166] (3.8)	4,388 [-122] (-2.7)	4,178 [-118] (-2.7)
실업	314 [58] (22.8)	612 [299] (95.2)	538 [-74] (-12.1)	375 [-164] (-30.4)	360 [-15] (-4.1)	250 [-52] (-17.2)
비경제활동	5,958 [24] (0.4)	5,993 [36] (0.6)	5,938 [-55] (-0.9)	5,705 [-233] (-3.9)	5,505 [-200] (-3.5)	5,274 [-229] (-4.2)
전체(인구)	11,423 [36] (0.3)	11,027 [-396] (-3.5)	10,820 [-206] (-1.9)	10,590 [-231] (-2.1)	10,253 [-337] (-3.2)	9,704 [-397] (-3.9)
취업비율	45.1	40.1	40.1	42.6	42.8	43.1
실업률	5.7	12.2	11.0	7.7	7.6	5.6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분,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청년층 노동시장의 또 다른 현안은 유희화 문제임.

- 노동시장 진입·이탈이 활발한 청년층의 경우 적극적인 구직활동만으로 노동력의 활용을 측정하는 데는 제한적임.
-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상태로 존재하는 유희인력(out-of-school joblessness)의 규모는 2002년 6월 현재 청년 졸업·중퇴자의 20.8%에 이

<표 1> 청년층 졸업·중퇴자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천명, %)

		취업	실업	통학 비경활	비통학 비경활	전체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유휴화율
남자	15~19세	73	14	58	46	191	45.5	15.7	23.9
	20~24세	373	43	28	68	512	81.3	10.3	13.3
	25~29세	1,278	90	28	109	1,505	90.9	6.6	7.2
	소 계	1,724	146	114	223	2,208	84.7	7.8	10.1
여자	15~19세	100	9	47	28	185	59.1	8.6	15.4
	20~24세	881	55	54	186	1,175	79.6	5.9	15.8
	25~29세	961	31	20	650	1,662	59.7	3.1	39.1
	소 계	1,941	96	120	864	3,022	67.4	4.7	28.6
남자	중졸 이하	124	20	13	51	207	69.1	13.8	24.5
	고졸	903	65	67	101	1,135	85.2	6.7	8.9
	전문대졸	357	23	10	28	418	90.8	6.0	6.7
	대졸 이상	341	39	24	43	447	85.0	10.4	9.6
	소 계	1,724	146	114	223	2,208	84.7	7.8	10.1
여자	중졸 이하	40	4	6	52	102	43.4	9.0	51.0
	고졸	886	43	67	539	1,535	60.5	4.6	35.1
	전문대졸	545	34	18	142	739	78.3	5.9	19.2
	대졸 이상	470	15	30	131	646	75.1	3.0	20.3
	소 계	1,941	96	120	864	3,022	67.4	4.7	28.6
전체	중졸 이하	164	24	19	103	309	60.6	12.6	33.3
	고졸	1,789	108	134	640	2,670	71.0	5.7	24.0
	전문대졸	902	57	29	170	1,158	82.9	5.9	14.7
	대졸 이상	811	54	54	174	1,093	79.1	6.2	16.0
	전 체	3,666	242	235	1,087	5,230	74.7	6.2	20.8

주 : 실업률=실업자/(취업자+실업자)×100

유휴화율=(실업자+비통학 비경제활동인구)/인구×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2002. 6.

르고 있음. 학교를 마치고서도 5명 가운데 1명이 유휴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지연 또는 불안정성이 심각하여 청년층 노동력 활용도가 매우 낮음을 의미함.

— 여성의 유휴화율은 28.6%로 남성의 10.1%에 비해 훨씬 높으며, 대졸 이상 여성의 경우에도 20.3%가 교육훈련이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노동시장의 현안인 취업난과 유휴화 문제를 노동력 수요의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 이행의 장기화·불안정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II. 청년층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

◆ 경제위기 전후 청년층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

-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청년층 노동력 수요의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는가를 살펴 보기 위해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1995~2001년 동안 지속적으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근로자 연계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분석함.
 - 청년층 일자리의 동태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고용의 순변화(net employment change)’ 이면에 존재하는 ‘고용의 총변화(gross employment change)’, 즉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을 분석함.
-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상시화됨에 따라 전체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짐.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체에서 노동력 구성의 중·장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자수는 1997년 1,482천명에서 2001년 1,341천명으로 감소하였으며, 30세 미만 청년층이 일자리의 감소를 주도함. 청년층 근로자의 비중은 1997년 42.3%에서 2001년 32.2%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표 2> 연령계층별 근로자수 추이

(단위: 천명, %)

	15~29세	30~44세	45세 이상	전 체
1996	644 (43.5)	655 (44.2)	182 (12.3)	1,481 (100.0)
1997	627 (42.3)	667 (45.0)	188 (12.7)	1,482 (100.0)
1998	529 (38.8)	661 (48.5)	175 (12.8)	1,365 (100.0)
1999	507 (36.4)	702 (50.5)	182 (13.1)	1,391 (100.0)
2000	495 (35.4)	710 (50.8)	193 (13.8)	1,398 (100.0)
2001	432 (32.2)	709 (52.9)	200 (14.9)	1,341 (100.0)

자료: 「고용보험 DB」 300인 이상 사업체-근로자 연계 패널자료, 1995~2001.

- 연령계층별로 세분화하면, 1997년 이후 청년층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일자리 창출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소멸이 가장 커서 대규모 사업체에서 청년층 일

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전체 일자리의 순창출률과 경기변동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청년 일자리의 순창출률은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가짐.
- 1998년 경제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청년층은 경제가 회복된 이후에도 일자리 창출률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소멸률도 가장 높게 나타나 청년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
- 경기회복기인 1999~2000년에도 청년 일자리의 창출률이 소멸률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규모 사업체에서 청년층 노동력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함.

<표 3> 연령계층별 일자리 변동률

	창출률				소멸률				순창출률			
	15~29세	30~44세	45세 이상	소 계	15~29세	30~44세	45세 이상	소 계	15~29세	30~44세	45세 이상	소 계
1996	14.2	2.6	2.0	6.3	1.2	3.4	6.2	1.7	13.0	-0.8	-4.2	4.6
1997	4.8	4.5	7.5	3.8	7.5	2.7	4.0	3.7	-2.6	1.8	3.5	0.1
1998	2.5	5.9	5.2	3.2	19.5	6.8	12.9	11.5	-17.0	-0.8	-7.7	-8.3
1999	7.0	9.5	9.2	6.9	11.3	3.5	4.9	5.0	-4.3	6.0	4.3	1.9
2000	6.8	5.1	10.1	5.0	9.2	4.1	4.5	4.6	-2.4	1.1	5.6	0.5
2001	3.0	4.7	8.1	2.9	16.5	4.9	4.5	7.0	-13.6	-0.2	3.7	-4.1

자료 : 「고용보험 DB」 300인 이상 사업체-근로자 연계 패널자료, 1995~2001.

○ 경제위기 이후 대규모 사업체의 청년층 채용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 졸업자보다 경력근로자를 채용하는 경향이 크게 증대하여 경력중시형 노동력 수요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 경기변동과 청년층 채용비중은 밀접한 관련을 가짐. 채용은 일자리 창출·소멸에 의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직한 근로자를 대체 고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평생 일자리(career job)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빈번한 직장이동을 경험하는 청년층은 경기회복에 따라 자발적인 이직이 증가하여 청년층 채용비중은 증가하게 됨.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의 채용비중이 경제위기 이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청년층 채용성향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줌.
- 한편 채용사유별로 청년층 채용추이를 보면, 1997년 학교나 직업훈련을 졸업하고 신규로 채용된 비중이 63.1%, 자영업을 포함하여 노동시장 경력이 있는 경력 채용 비중이 29.2%에서 2001년 각각 22.1%, 62.3%로 역전됨. 경력직 채용경향은 모든 학력에서 나타나며, 특히 대졸 이상인 경우 경력중시형 채용구조로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남.

<표 4> 채용 추이

(단위 :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채용비중	15~29세	69.4	67.8	52.3	58.6	63.5	60.2
	30~44세	21.9	22.4	35.2	32.1	27.0	28.9
	45세 이상	8.6	9.9	12.3	9.3	9.4	10.9
청년층 채용사유	신 규	64.1	63.1	42.2	25.8	24.4	22.1
	경 력	27.7	29.2	34.3	54.1	62.0	62.3
	적용확대	1.6	2.2	9.1	9.1	9.1	8.5
	전 직	6.6	5.6	14.4	11.0	4.4	7.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고용보험 DB」 300인 이상 사업체-근로자 연계 패널자료, 1995~2001.

◆ 사업체 특성과 청년층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

○ 산업·규모 등의 사업체 특성과 창업·폐업 등의 사업체 변동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고용보험 DB」에 수록되어 있는 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체-근로자 연계 패널자료’를 구성함. 다만 1998년 10월부터 고용보험이 전규모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근로자수의 측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분석대상기간을 1999~2001년으로 한정함.

- 전규모·전산업을 대상으로 한 전체 일자리는 1999년 100개의 일자리를 기준으로 21.2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15.5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5.7개의 일자리가 순증가하였음. 경제가 급격하게 회복하던 2000년에는 순일자리 창출률이 6.7%로 증가하였으며, 경기가 하락하던 2001년에는 일자리 창출률이 급격하게 둔화하여 순일자리 창출률이 1.0%에 불과함.
- 반면 청년층 일자리는 1999~2000년 동안 미미하게 증가하다가 2001년에 감소하였음. 또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중년층 다음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일자리 소멸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순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청년층 일자리의 상대적 감소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체 변동에 따른 청년층 일자리의 변화

- 기존 사업체의 사업 확대·축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소멸이 창업·폐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소멸보다 큰 경향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남. 그럼에도 창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40% 내외의 수준을 기록하여 미국과 유사한 수준에 이를 만큼 기업가 활동(entrepreneurship)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표 5> 연령계층별 일자리 창출·소멸

(단위: 천명, %)

	1999			2000			2001		
	창출	소멸	순창출	창출	소멸	순창출	창출	소멸	순창출
15~29세	472 (8.1)	425 (7.3)	47 (0.8)	526 (8.5)	418 (6.8)	108 (1.8)	406 (6.3)	490 (7.6)	-84 (-1.3)
30~44세	537 (9.3)	340 (5.9)	197 (3.4)	568 (9.2)	365 (5.9)	203 (3.3)	499 (7.8)	416 (6.5)	82 (1.3)
45세 이상	220 (3.8)	133 (2.3)	87 (1.5)	247 (4.0)	144 (2.3)	104 (1.7)	228 (3.5)	160 (2.5)	68 (1.1)
전체	1,228 (21.2)	898 (15.5)	331 (5.7)	1,342 (21.7)	927 (15.0)	415 (6.7)	1,133 (17.7)	1,066 (16.6)	67 (1.0)

주: ()안은 연령계층별 기여도임.

자료: 「고용보험DB」 사업체-근로자 연계 패널자료, 1999~2001.

으로 나타남. 특히 창업을 통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은 청년층 취업난을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임.

- 기존 사업체의 일자리 변동은 경기순환적인 패턴을 보이는 반면, 창업·폐업에 의한 일자리 변동은 경기변동과 그다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기존 사업체에서는 경기회복기인 1999~2000년에 일자리 확대가 일자리 감소보다 크지만, 경기가 하강하던 2001년에는 일자리 확대가 일자리 감소보다 작음. 반면 창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경기변동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기가 하강하던 2001년에 일자리 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증가함.

○ 사업체 규모별 청년 일자리의 변화

-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활발하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자리 소멸 효과를 능가하여 순일자리 창출도 대규모 사업체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의 경우에도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순일자리 창출이 발생하는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1999~2001년 동안 청년층의 일자리가 순감소함.
- 「고용보험 DB」에서 충원되지 않은 일자리(vacancies)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에서 청년층의 순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병행할 경우 청년층 취업난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함.

<표 6> 사업체 변동과 연령계층별 일자리 창출·소멸

(단위: 천명, %)

		1999			2000			2001		
		창출	소멸	순창출	창출	소멸	순창출	창출	소멸	순창출
창업	15~29세	165 (2.9)		165 (2.9)	204 (3.3)		204 (3.3)	161 (2.5)		161 (2.5)
	30~44세	180 (3.1)		180 (3.1)	227 (3.7)		227 (3.7)	191 (3.0)		191 (3.0)
	45세 이상	66 (1.1)		66 (1.1)	73 (1.2)		73 (1.2)	67 (1.0)		67 (1.0)
	소 계	411 [7.1]		411 [7.1]	503 [8.2]		503 [8.2]	419 [6.5]		419 [6.5]
사업 확대	15~29세	287 (4.9)	29 (0.5)	258 (4.5)	302 (4.9)	30 (0.5)	272 (4.4)	222 (3.5)	29 (0.5)	193 (3.0)
	30~44세	304 (5.2)	15 (0.3)	289 (5.0)	289 (4.7)	18 (0.3)	270 (4.4)	242 (3.8)	17 (0.3)	225 (3.5)
	45세 이상	126 (2.2)	10 (0.2)	117 (2.0)	131 (2.1)	9 (0.1)	123 (2.0)	112 (1.7)	8 (0.1)	104 (1.6)
	소 계	717 [12.4]	53 [0.9]	664 [11.4]	722 [11.7]	57 [0.9]	665 [10.8]	577 [9.0]	54 [0.8]	523 [8.1]
사업 유지	15~29세	11 (0.2)	25 (0.4)	-13 (-0.2)	11 (0.2)	30 (0.5)	-18 (-0.3)	12 (0.2)	35 (0.5)	-22 (-0.3)
	30~44세	24 (0.4)	16 (0.3)	8 (0.1)	28 (0.5)	20 (0.3)	8 (0.1)	34 (0.5)	22 (0.4)	11 (0.2)
	45세 이상	10 (0.2)	5 (0.1)	5 (0.1)	15 (0.2)	5 (0.1)	10 (0.2)	17 (0.3)	6 (0.1)	11 (0.2)
	소 계	46 [0.8]	46 [0.8]	0 [0.0]	55 [0.9]	55 [0.9]	0 [0.0]	63 [1.0]	63 [1.0]	0 [0.0]
사업 축소	15~29세	8 (0.1)	276 (4.8)	-268 (-4.6)	9 (0.1)	279 (4.5)	-270 (-4.4)	10 (0.2)	363 (5.7)	-352 (-5.5)
	30~44세	28 (0.5)	192 (3.3)	-164 (-2.8)	25 (0.4)	231 (3.7)	-206 (-3.3)	32 (0.5)	291 (4.5)	-259 (-4.0)
	45세 이상	18 (0.3)	81 (1.4)	-63 (-1.1)	28 (0.5)	90 (1.5)	-62 (-1.0)	32 (0.5)	112 (1.7)	-80 (-1.2)
	소 계	54 [0.9]	548 [9.5]	-494 [-8.5]	62 [1.0]	601 [9.7]	-539 [-8.7]	74 [1.2]	765 [11.9]	-691 [-10.8]
폐업	15~29세		96 (1.6)	-96 (-1.6)		79 (1.3)	-79 (-1.3)		64 (1.0)	-64 (-1.0)
	30~44세		116 (2.0)	-116 (-2.0)		96 (1.6)	-96 (-1.6)		86 (1.3)	-86 (-1.3)
	45세 이상		38 (0.7)	-38 (-0.7)		39 (0.6)	-39 (-0.6)		34 (0.5)	-34 (-0.5)
	소 계		250 [4.3]	-250 [-4.3]		214 [3.5]	-214 [-3.5]		184 [2.9]	-184 [-2.9]

주: []안은 사업체 변동별 기여도이며, ()안은 각 사업체 변동별로 연령계층별 기여도임.

자료: 「고용보험 DB」 사업체-근로자 연계 패널자료, 1999~2001.

<표 7> 사업체 규모와 연령계층별 일자리 창출·소멸

(단위: 천명, %)

		1999			2000			2001		
		창출	소멸	순창출	창출	소멸	순창출	창출	소멸	순창출
1~99인	15~29세	355 (6.1)	281 (4.8)	74 (1.3)	405 (6.6)	299 (4.9)	105 (1.7)	325 (5.1)	325 (5.1)	0 (0.0)
	30~44세	394 (6.8)	240 (4.1)	154 (2.7)	460 (7.5)	274 (4.4)	186 (3.0)	395 (6.2)	306 (4.8)	89 (1.4)
	45세 이상	167 (2.9)	100 (1.7)	67 (1.2)	187 (3.0)	113 (1.8)	74 (1.2)	172 (2.7)	126 (2.0)	46 (0.7)
	소 계	915 [15.8]	620 [10.7]	295 [5.1]	1,052 [17.0]	686 [11.1]	366 [5.9]	893 [13.9]	758 [11.8]	135 [2.1]
100~299인	15~29세	49 (0.8)	43 (0.7)	6 (0.1)	49 (0.8)	44 (0.7)	5 (0.1)	35 (0.5)	52 (0.8)	-17 (-0.3)
	30~44세	51 (0.9)	35 (0.6)	16 (0.3)	45 (0.7)	39 (0.6)	6 (0.1)	38 (0.6)	45 (0.7)	-7 (-0.1)
	45세 이상	27 (0.5)	17 (0.3)	9 (0.2)	28 (0.5)	17 (0.3)	12 (0.2)	26 (0.4)	17 (0.3)	9 (0.1)
	소 계	127 [2.2]	95 [1.6]	32 [0.5]	122 [2.0]	99 [1.6]	23 [0.4]	99 [1.5]	114 [1.8]	-15 [-0.2]
300인	15~29세	68 (1.2)	101 (1.7)	-33 (-0.6)	73 (1.2)	75 (1.2)	-2 (0.0)	47 (0.7)	113 (1.8)	-67 (-1.0)
	30~44세	92 (1.6)	65 (1.1)	27 (0.5)	63 (1.0)	52 (0.8)	11 (0.2)	65 (1.0)	65 (1.0)	0 (0.0)
	45세 이상	26 (0.5)	16 (0.3)	10 (0.2)	32 (0.5)	14 (0.2)	18 (0.3)	29 (0.5)	17 (0.3)	13 (0.2)
	소 계	186 [3.2]	182 [3.1]	4 [0.1]	168 [2.7]	141 [2.3]	26 [0.4]	141 [2.2]	195 [3.0]	-54 [-0.8]

주: []안은 사업체 규모별 기여도이며, ()안은 각 사업체 규모별로 연령계층별 기여도임.

자료: 「고용보험 DB」 사업체-근로자 연계 패널자료, 1999~2001.

○ 산업별 청년 일자리의 변화

-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활발하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자리 소멸 효과를 능가하여 순일자리 창출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연령계층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비중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높은 반면, 제조업에서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8> 산업별 연령계층별 일자리 창출·소멸

(단위: %)

			일자리 창출				일자리 소멸				순일자리 창출	
			창출률	창출 비중		소멸률	소멸 비중		순창출률	순창출 비중		
				창업	확장		축소	폐업				
1999	15~29세	제조업	18.5	13.9	3.6	10.3	16.9	16.4	12.9	3.5	1.6	8.0
		서비스업	23.3	26.2	11.1	15.1	20.8	30.3	21.7	8.5	2.5	16.4
	30~44세	제조업	18.9	17.7	5.6	12.0	11.4	15.2	10.4	4.7	7.5	23.8
		서비스업	22.0	25.2	10.3	14.9	14.3	23.5	13.6	9.9	7.7	29.5
	45세 이상	제조업	20.6	5.6	1.8	3.8	12.8	5.0	3.5	1.5	7.9	7.2
		서비스업	23.6	11.3	4.0	7.3	14.0	9.7	6.5	3.2	9.6	15.1
2000	15~29세	제조업	17.9	12.6	3.5	9.1	16.2	15.3	12.5	2.8	1.7	7.2
		서비스업	26.3	28.8	13.2	15.6	19.6	28.7	21.8	6.9	6.7	28.8
	30~44세	제조업	16.6	15.3	5.9	9.4	11.6	15.9	11.6	4.3	5.0	14.0
		서비스업	23.1	26.8	12.6	14.1	14.1	24.1	16.6	7.5	9.0	32.0
	45세 이상	제조업	21.7	5.5	1.9	3.6	12.3	5.4	3.7	1.7	9.4	5.8
		서비스업	23.7	11.1	4.1	7.0	14.0	10.5	7.4	3.1	9.8	12.2
2001	15~29세	제조업	12.4	10.0	3.4	6.6	21.7	17.9	15.8	2.1	-9.4	-140.4
		서비스업	20.9	28.6	12.8	15.8	21.0	27.2	22.6	4.6	-0.1	55.3
	30~44세	제조업	13.2	14.4	6.1	8.3	13.6	16.6	12.9	3.7	-0.4	-27.9
		서비스업	19.7	29.1	13.1	16.0	14.5	23.1	17.7	5.4	5.2	143.9
	45세 이상	제조업	17.7	5.5	2.1	3.4	13.5	5.5	4.1	1.4	4.2	4.6
		서비스업	20.7	12.4	4.6	7.9	13.8	9.7	7.5	2.2	7.0	64.5

자료: 「고용보험 DB」 사업체-근로자 연계 패널자료, 1999~2001.

Ⅲ.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 첫 일자리로의 이행과 노동시장 성과

-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이행기간은 평균 11.7개월로 조사되었으며, 취업경험이

없는 우측절단된(right-censored) 표본을 고려하여 해자드 추정을 통한 평균 이행기간은 14.9개월로 나타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6개월 이내에 첫 일자리를 획득하는 비중은 64.3%에 이르고 있으며, 16.5%는 2년 이상 장기적인 미취업을 경험하고 있음.
-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Kaplan-Meyer 방법을 이용하여 미취업기간의 경과에 따른 이행확률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이행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첫 일자리로의 이행확률이 감소하는 추세(negative duration dependence)를 보여 이행기간의 장기화가 청년층 노동력의 유희화를 야기하고 있음을 시사함.

<표 9> 청년층 졸업·중퇴자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 분포

(단위: 천명, %)

		전체	<0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평균 (개월)
전 체		5,230 (100.0)	776 (14.8)	1,797 (34.4)	790 (15.1)	424 (8.1)	578 (11.0)	288 (5.5)	577 (11.0)	11.7
성별	남 자	2,208 (100.0)	247 (11.2)	665 (30.1)	347 (15.7)	187 (8.5)	240 (10.9)	150 (6.8)	373 (16.9)	14.9
	여 자	3,022 (100.0)	530 (17.5)	1,132 (37.5)	443 (14.7)	237 (7.8)	338 (11.2)	138 (4.6)	204 (6.8)	9.4
학력	중졸 이하	309 (100.0)	5 (1.5)	77 (24.7)	34 (11.0)	39 (12.7)	51 (16.6)	28 (9.0)	75 (24.4)	26.6
	고 졸	2,670 (100.0)	385 (14.4)	843 (31.6)	403 (15.1)	190 (7.1)	315 (11.8)	150 (5.6)	385 (14.4)	13.7
	전문대졸	1,158 (100.0)	204 (17.6)	442 (38.2)	181 (15.7)	102 (8.8)	104 (9.0)	59 (5.1)	66 (5.7)	7.5
	대졸 이상	1,093 (100.0)	183 (16.7)	436 (39.9)	171 (15.7)	93 (8.5)	108 (9.9)	51 (4.7)	51 (4.6)	7.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2002.6.

○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길수록 학교교육과 직무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규교육을 마치기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의 61.7%,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53.3%가 교육이 직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이행기간이 2~3년인 근로자의 57.0%, 3년 이상인 근로자의 6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함.

<표 10>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별 교육-직무 일치도

(단위: 명, %)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별로 안됨	전혀 안됨	전 체
<0	158 (23.3)	260 (38.4)	158 (23.3)	101 (14.9)	677 (100.0)
3개월 미만	256 (22.8)	342 (30.5)	295 (26.3)	229 (20.4)	1,122 (100.0)
3~6개월 미만	49 (12.4)	104 (26.3)	119 (30.1)	124 (31.3)	396 (100.0)
6개월~1년 미만	52 (17.9)	80 (27.6)	72 (24.8)	86 (29.7)	290 (100.0)
1~2년 미만	51 (14.0)	100 (27.5)	120 (33.0)	93 (25.5)	364 (100.0)
2~3년 미만	37 (20.7)	40 (22.3)	58 (32.4)	44 (24.6)	179 (100.0)
3년 이상	42 (12.3)	76 (22.3)	119 (34.9)	104 (30.5)	341 (100.0)
전 체	645 (19.1)	1,002 (29.7)	941 (27.9)	781 (23.2)	3,369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2002. 6.

- 교육-직무 일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한 프로빗 추정에 따르면,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길수록 유의하게 교육이 직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첫 일자리 이행기간의 장기화가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탐색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을 시사함.

<표 12>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의 교육-직무 일치도에 대한 프로빗 분석

	표본 특성		추정 결과		
	평균	(표준편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유의도
상수항			0.033	(0.054)	
남 성	0.446	(0.497)	-0.157	(0.047)	***
중졸 이하	0.017	(0.130)	-1.081	(0.279)	***
고교 중퇴	0.021	(0.145)	-0.914	(0.215)	***
전문대 졸업	0.287	(0.453)	0.510	(0.055)	***
전문대 중퇴	0.014	(0.119)	-0.572	(0.217)	***
대학 졸업	0.213	(0.410)	0.789	(0.063)	***
대학 중퇴	0.013	(0.112)	0.136	(0.195)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년)	0.869	(1.535)	-0.073	(0.017)	***
두 번 이상 취업경험	0.549	(0.498)	-0.390	(0.048)	***
Log Likelihood			-2,066.646		
N			3,369		

주:***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2002. 6.

- 첫 일자리로의 이행 과정이 이후 노동시장에 정착하여 획득한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이후의 임금수준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를 마치고 난 후의 미취업이 장기화될수록 이후의 임

금수준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함.

- 직장이동성을 나타내는 두 번 이상 취업경험 변수는 이후의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이 경험하는 빈번한 직장이동이 더 나은 일자리를 통한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표 13> 첫 일자리 이행기간의 임금효과

	추정계수	(표준오차)	유의도
상수항	8.003	(0.025)	***
남 성	0.143	(0.014)	***
중졸 이하	-0.306	(0.050)	***
고교 중퇴	-0.088	(0.043)	**
전문대 졸업	0.154	(0.016)	***
전문대 중퇴	-0.018	(0.052)	
대학 졸업	0.421	(0.018)	***
대학 중퇴	0.069	(0.055)	
근속년수	0.078	(0.009)	***
근속년수 제곱	-0.005	(0.001)	***
잠재적 경력년수	0.030	(0.008)	***
경력년수 제곱	0.000	(0.001)	
첫 일자리 이행기간(년)	-0.015	(0.005)	***
두 번 이상 취업경험	-0.020	(0.016)	
Adj R-Sq	0.259		
N	3,369		

주:***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2002. 6;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2. 3.

◆ 재학중 근로경험(In-school work experience)과 노동시장 성과

- 청년층 일자리 감소와 경력중시형 노동력 수요 구조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 재학 중에 근로경험을 통해 진로설계 및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현장중심 학습(work-based learning)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아르바이트 등 재학중 근로경험의 규모와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살펴봄.
- 재학중에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근로경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청년패널조사」(중앙고용정보원)에 따르면, 57.6%가 (전문)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취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수준별로 보면, 전문대 졸업자의 50.2%가, 대학 졸업자의 64.2%가 취업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 현재 고교 재학생의 취업비

율(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은 2.3%에 불과하지만, 전문대 재학생은 22.6%, 대학 재학생은 18.5%에 이르고 있음.

<표 13> 재학중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단위: 명, %)

		전 체	전문대졸	대 졸
취업경험		811 (57.6)	334 (50.2)	477 (64.2)
취업횟수	1회	275 [34.2]	132 [40.0]	143 [30.2]
	2회	206 [25.7]	94 [28.5]	112 [23.7]
	3회	127 [15.8]	56 [17.0]	71 [15.0]
	4회 이상	195 [24.3]	48 [14.5]	147 [31.1]
취업 무경험		598 (42.4)	332 (49.8)	266 (35.8)

주: []안은 취업경험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1.

○ 재학중 근로경험은 학교교육을 마치고 신속하게 첫 일자리를 획득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첫 일자리로의 임금을 높이는 효과를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첫 일자리로의 평균 이행기간은 8.5개월로서 미경험자의 12.5개월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첫 일자리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Cox 해자드 추정결과에 따르면, 재학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5> 첫 일자리 이행 취업 해자드 추정 결과 : Cox 해자드 분석

	표본 특성		추정 결과		
	평 균	(표준편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유의도
남성 더미	0.354	(0.478)	-0.160	(0.070)	**
대졸 더미	0.526	(0.499)	0.004	(0.067)	
이공계열 더미	0.399	(0.489)	-0.066	(0.075)	
기타계열 더미	0.199	(0.399)	0.176	(0.088)	**
아버지 고졸 더미	0.410	(0.491)	-0.113	(0.080)	
아버지 전문대졸 이상 더미	0.164	(0.370)	-0.118	(0.121)	
어머니 고졸 더미	0.310	(0.462)	0.047	(0.084)	
어머니 전문대졸 이상 더미	0.046	(0.209)	0.205	(0.184)	
가구근로소득	260.833	(395.248)	-0.000	(0.000)	
재학중 근로경험 더미	0.573	(0.494)	0.191	(0.066)	***
-2 LOG L			6,877.595		
Wald Chi-Square			26.903 ***		
표본수			1,284		

주: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1.

－ 그러나 첫 일자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학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첫 일자리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16> 첫 일자리 임금추정 결과

	표본특성		추정 결과		
	평균	표준편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도
상수항			4.092	(0.045)	***
남성더미	0.327	(0.469)	0.176	(0.023)	***
기혼 더미	0.173	(0.379)	0.029	(0.028)	
대출 더미	0.527	(0.450)	0.153	(0.021)	***
이공계열 더미	0.385	(0.487)	-0.008	(0.024)	
기타계열 더미	0.211	(0.408)	0.039	(0.028)	
근속	17.760	(16.205)	0.005	(0.001)	***
사업체 규모 30~299명 더미	0.334	(0.472)	0.134	(0.023)	***
사업체 규모 300인 이상 더미	0.150	(0.357)	0.261	(0.031)	***
비정규직 더미	0.113	(0.317)	-0.087	(0.033)	***
주당 평균근로시간	48.373	(14.650)	0.002	(0.001)	***
첫 일자리 이행기간	7.277	(12.479)	0.001	(0.001)	
재학중 근로경험 더미	0.567	(0.496)	-0.003	(0.021)	
Adj R-Sq			0.225		
F-value			29.01 ***		
표본수	1,160				

주:***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1.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학중의 근로경험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직업태도를 함양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지식·숙련을 개발하여 평생 일자리(career job) 획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함.

－ 재학중의 근로경험이 대부분 단순업무에 불과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표 16> (전문)대학 재학중의 아르바이트 종류

(단위 : %)

	전 체	전문대졸	대 출
서빙	21.1	27.2	17.7
판매서비스직	15.2	18.8	13.2
과외	14.7	2.8	21.5
단순노무직	6.0	6.3	5.9
사무보조	5.6	4.1	6.5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1.

IV. 정책적 시사점

- 최근 청년층 노동시장의 현안은 청년 실업보다는 취업난과 유휴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경제위기 이후 노동력 수요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노동시장 간 괴리에 따라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임.
 - 따라서 사후적인 실업대책보다는 예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 대기업에서 청년층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용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 사업체와 서비스업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또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 경제·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으로
 - 노동력 수요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청년층의 눈높이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임.
-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 강화는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실패를 예방하는 사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임.
 - 이를 위해 교육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취업실태 공표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직업전망에 근거하여 대학·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경력직 중심의 채용 관행으로 노동력 수요가 변화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일자리 탐색

과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체계화된 근로경험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함.

- 전공·적성에 적합한 연수기업을 선정하고 교육과 연계된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경험 프로그램(직장체험프로그램, 기업연수제도 등)에서 학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